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진로
이웃 사랑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와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 거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거듭난 참 신자의 모든 가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전도는
주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이라”
(말 1:3)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라! (요요안함영회)

누구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가!

는 것과 권력을 얻는 것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사탄은 거짓된 소망과 만족, 환상의 원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원수를 지옥에 파멸시킬 때까지 우리의 환상은 계속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약함과 불안정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가인과 아벨의 투쟁으로부터 나타나는 인간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한편, 성경에서 본이 된 자들은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들이 그 좋은 예이다.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가?” 하며 인간들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우리와 같은 인생들이었다. (막 9:33, 34, 38~40)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도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나타낸다. 예수님과 3년 이상 같이 했던 사도들조차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속한 천국에 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막 10:43~45)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막 10:36, 37) 이처럼 이 땅에서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원칙을 말씀하셨다.

우선 “하나님의 절대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장하신다. 즉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동안 무엇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인지를 친히 결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주께서 하늘에 보좌를 두셨다. (시 113:1)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왕 위에서 통치하시고 그 왕권을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 (단 5:21) 왕 중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딤후 6:15)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엡 1:11)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인간의 책임을 두고 혼란스러워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성과 인간의 절대성을 말한다면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요 3:3)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총의 자녀임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가치를 두십시오.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하는 달콤한 제안에 나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참 신자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더욱 전심하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전 1:21) 사실 전도의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이고, 받은 전도지가 휴지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욕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영혼들이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전 2:4)

매주 수요일에는 충현전도대원들이 교회주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는 모든 여전도회원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곳에서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전합니다. 토요일에 있는 남전도회원들의 전도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많은 열매를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거나 전도지를 받은 분 심령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겨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전 3:6) 장마와 무더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는 전적으로 모순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강제로 하시지는 않는다. 야고보와 요한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할 때에 주님은 자들을 책망치 않으셨다. 대신에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며 하나님의 절대권을 상기시켜 주셨다. 또한 준비된 자들에게 속한 것도 언급해 주셨다. (막 10:40)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천국 안에서 특별한 책임을 위하여, 특별한 장소에, 특정인을 보내시는 일을 간섭하셨다. (행 20:28)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우신다. (행 1:5)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고 믿음과 삶에 대한 열려로부터 벗어나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드러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게 된다.

두 번째로 “고난”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영적 지도자는 고난과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그 값을 치러야 한다.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를 향하여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다. (막 10:38) 여기에서 잔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인생과 행복을 의미한다. (시 23:5, 75:8; 사 51:17) 또한 예수님은 세례를 말씀하셨다. (막 10:39)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 또 다른 제자들이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다. (행 12:2) 오늘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고난의 자리에서 서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고난의 길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검은한 중”의 모습이다.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십자가의 길, 종의 길을 걷는 것이다. 세상이 면류관을 씌울 수도 벗길 수도 없는 왕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며 혼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을 것을 권면하였다. 천국 백성 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어떠한 책임이든지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그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이 때를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예 4:14)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 때에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인도하는 것을,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에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저들도 원하게 될 것이다. (요 13:14, 15, 17) 아멘.

MANY CONVINCING PROOFS

To these He also presented Himself alive after His suffering, by many convincing proofs, appearing to them over a period of forty days and speaking of the things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Acts 1:3)

So many Christians believe in Jesus Christ, but how many of them actually believe that He resurrected and is alive today? Do you truly believe in the risen Christ? Before His resurrection, Jesus prophesized about it and the Bible clearly declares it, but so many people doubt it. How many people do you know who are really excited about this miraculous fact? Honestly, if Jesus came down from heaven right now just to shake your hand, you would be excited from that moment until it was your turn to leave this earth. Let me tell you, those who really believe in the risen Christ have this enthusiasm. Sadly, not that many people have this passion. People want proof, and the good news is that there is plenty of it. The Bible provides everyone with many absolute and infallible proofs. Let's look at some of the evidence.

The empty tomb is a convincing proof. Even the enemies of Jesus remembered His promised resurrection. The chief priests and Pharisees asked the Roman governor, Pontius Pilate, to make sure that Jesus' tomb was secure because they remembered He said, "After three days I am to rise again." (Mt. 27:63) The tomb was guarded and sealed with the highest security measures available. (Mt. 27:66) Three days later, some women friends of Jesus came to the tomb in hopes of embalming Him. They were unable to come sooner because of the Sabbath regulations. These women forgot His promise of resurrection or did not really believe He could rise from the dead. To their amazement, the tomb was empty. (Mt. 28:4-6) They actually saw the guards of the tomb acting like men frightened to death, the huge stone covering the entrance rolled away, an angel, and an unoccupied grave site. It is strange that Jesus' enemies believed in His resurrection, but His closest followers did not. The guards reported Jesus' resurrection to the authorities, and the authorities bribed them with "a large sum of money." (Mt. 28:12) They instructed them to lie and say, "His disciples came by night and stole Him away while we were asleep." (Mt. 28:13) If they told this lie, the authorities would protect them from the governor's wrath. What this all means is that the tomb was empty and no human removed its contents.

The eye witnesses are a convincing truth. In any court of law, eye witnesses are a very important element. Besides the tomb guards, the women who came to the tomb without any hope, expecting a dead body, are really good witnesses. (Lk. 23:55-24:11) They saw Jesus die and laid to rest, and because of their love and devotion they wanted to anoint His dead body. In their minds, Jesus was 100% dead, but they saw His empty

tomb and later His resurrected body. Their testimony is rock solid. Peter and John also witnessed the empty tomb firsthand (Jn. 20:3-7), and Thomas actually touched Jesus in front of the other disciples, "Then He said to Thomas, 'Reach here with your finger, and see My hands; and reach here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and do not be unbelieving, but believing.' Thomas answered and said to Him, 'My Lord and my God!' Jesus said to him, 'Because you have seen Me, have you believed? Blessed are they who did not see, and yet believed.'" (Jn. 20:27-29) Every one of Jesus' disciples saw His resurrected body (v. 3) and heard His voice. The Emmaus disciples walked and talked with Him, and upon recognizing Him immediately returned to Jerusalem. (Lk. 24:13-33) Jesus also appeared to James, and then five hundred other living witnesses. (1 Cor. 15:6) He even appeared to Paul. (1 Cor. 15:8) One cannot dismiss the apologetic value of all these witnesses to Jesus Christ's resurrection. Prior to His resurrection, His followers acted cowardly, but after they saw Jesus each one became energized with God's amazing proof. Before Jesus resurrected, all His disciples were debased by the crucifixion and forsook Him. They all fled in fear. (Mt. 26:56) After His resurrection, their fears turned to faith and their doubts turned to real eye witnesses. Their cowardice turned into courage, and they were willing to lay down their lives for the truth-Jesus Christ was alive!

The greatest and certainly most convincing proof is the change that Jesus Christ makes in lives today. 2 Corinthians 5:17 says,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Jesus wants to change you. If you meet Jesus Christ by faith, you will be saved,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a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for with the heart a person believes, resulting in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he confesses, resulting in salvation." (Rom. 10:9&10) The exciting testimonies of Christ's initial followers saved many lives, which in turn saved many others, including yours and mine. The church exists because Jesus resurrected.

Do you have convincing proofs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f you are energized through the power of His Holy Spirit, by the knowledge of His resurrection, then you have everything needed to change and walk the narrow path. My dear friends, when you believe in the risen Christ miraculous things happen. ■

확실한 많은 증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3)



김성완 목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그 사실에 대해 예언하셨고 또한 분명하게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의심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 정말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악수를 나눈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그 감격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증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제시해 줍니다. 부활의 증거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빈 무덤

빈 무덤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에는 파수꾼이 세워졌고 철저히 봉인되었습니다. (마 27:66)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인들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좀더 빨리 오지 못했던 것은 안식일의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게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 28:4~6) 그들은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너무 놀라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는 것과 무덤을 막고 있었던 커다란 돌이 굴러가 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 있던 천사도 만났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반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파수꾼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돈을 많이 주어”(마 28:12) 그들을 매수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마 28:13) 대제사장들은 만약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 주면 자신들이 추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부활의 목격자들

목격자들은 정확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정에서도 목격자는 매우 중요한 증인입니다. 파수꾼 외에도 목격자는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은 시신만 기대하고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눅 23:55~24:11) 그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누운 것을

보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 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맨 먼저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요 20:3~7)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져보았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요 20:27~29)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고(행 1:3)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대화를 나누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눅 24:13~33) 그 후 예수님은 야고보와 오백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전 15:6) 주님은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고전 15:8)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모든 증인들의 증언 가운데 무가치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주님을 따르던 자들은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증거로 인해 담대해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변신했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마 26:56)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었고, 의심은 확실한 증언으로 바뀌었습니다. 겁쟁이들이 용감한 자가 되었고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살의 변화

가장 위대하며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일으키신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17은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 그리스도를 따르던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는 증인들은 많은 생명을 구원했고, 구원받은 그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만약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고 새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듭남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

수요1부 해배 메시지 (2007. 7. 4.)

가서 베드로에게 이르라 (마가복음 16:7)

마가복음에서는 겸손하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단순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인 16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 하느님이셨다.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였다. 물론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다.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께도 이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부활!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 자신의 말씀처럼 안식 후 첫 날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덤에 갔던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다. 더군다나 이들은 흰 옷을 입은 천사를 만나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다.(막 16:1-6) 사실 3일 전,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의해 잡혀 갔을 때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다.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도망쳤다. 그런데 여인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천사가 제자들, 특히 베드로라는 이름을 호명하며 메시지를 전하였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막 16:7) 베드로는 조급한 성격 탓에 많은 실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특별하게 호명하면서까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알아야 한다. 그를 버리지 않았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막 14:22~24) 이 만찬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삶과 피로 말미암는 것임을 밝히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후에 자신을 버리고 흩어 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고하셨다.(막 14:27) 또한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막 14:28) 특히 베드로의 배신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막 14:30) 이 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이다(막 14:31)라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대답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였다. 베드로는 달이 두 번 올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다.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죄를 탐한다. 결국 욕망으로 가득한 영혼으로 인해 육체마저 병든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큰소리만 칠뿐 때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기회를 주신다.

베드로는 알아야 한다. 그가 용서받은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흩어진 것에 반해 베드로는 예수님 주위를 맴돌았다.(막 14:54) 그러다가 어린 총이 베드로의 정체를 폭로하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다.(막 14:66,67)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막 14:72)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눈치만 살피고 있지 않은가? 세상과 적당히 발맞추어 가려고 하지 않는가? 적당히 십자가를 따르고 때로는 적당히 세상을 따르고... 더 이상 윤리와 전통을 알지우지 말라. "왜?"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자. "가서 배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막 10:21) 예수님은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셨다. 이 용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다. "우리는 주님을 볼 때만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니..."(한 412장) 자기의 의, 공로, 교만, 자존심을 버리자. 이것들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끈다. 따라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자. 베드로를 용서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도 용서하신다.

베드로는 알아야 한다. 그에게 미래가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영원한 미래를 주셨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베드로의 회개 순간을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던 예수님의 눈과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눅 22:61,62)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눅 5:5~11)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네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32) 결국 베드로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소망하는 미래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를 거름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 1:3,4)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베드로를 더욱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였고 순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믿음이 주는 구원의 참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벧전 1:8,9)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막 16:7) 영원한 낙오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고 용서하셨다. 나아가 그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이제 베드로에게 미래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의, 공로, 경험, 지식인가? 아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어 왔던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자.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한 걸음씩을 인도하소서, 주 뜻대로 늘 주장하시어,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찬 429장)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가득한 8교구

8교구는 강동구(성대동 제의)와 경기도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6개 지역 18개 구역, 232세대(634명)로 구성된 8교구의 은 식구들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속에 작은 교회가 살아 생명을 잇는 구역 활동(롬 12:5)을 통해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의 회화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지역적 특성상 재개발 중이던 아파트 단지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수할 것이 많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어느 때보다 큰 열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구의 모든 식구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운 지경을 개척하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풍성한 지역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구 내에 섬세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은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연약한 이웃이나 사탄의 손길이 필요한 식구들에게 찾아가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남전도의 연합으로 매일 삼일동에서 소재한 「사랑의 힘터」를 방문하여 중증 장애인들을 수년간 묵묵 봉사로 섬기며, 독거 노인 시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교구 내 연약한 자제들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의 교구 모임의 말씀을 통한 열적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구역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모임 시간에 특히 많은 비중을 두어,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며 한 공동체임을 느끼면서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갖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구역인 것처럼, 저희 8교구도 가정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전진 운동의 성상 동역이 되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18개 구역이 서로를 격려하며 분명한 사명과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허벅지에도 하나씩에는 저희 8교구 일꾼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여러 모양으로 허락하시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고후 5:8)로서 위임받은 구역과 전도회와 그밖의 모든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며 모든 일꾼이 앞선 자로서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막 16:24) 믿음으로 순종(히 5:8)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갈 5:22,23)를 풍성한 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교구를 통해 사랑할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교회와 8교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라"(살전 1:3)



송두선(장로, 8교구장)

선교다이러리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출발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로 출발, 2시쯤 파송예배를 마치고 교구식구,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의 환송을 받으며 출발 직전, 버스 유리창 밖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났다.

선교지 도착 심한 흠바람이 불고 있었다. 흠바람 속의 긴 일정이기에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달리고 또 달렸다. 속도를 정하니 새벽 2시 30분이었다.

시역 1일차 어제의 고단한 일정을 뒤로 하고 아침 경전회를 통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 땀나는 마음으로 사역지를 향해 찬송을 힘차게 부르며 달려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조그만 강당에 150여 명의 밝고 맑은 깨끗한 심령들이 예쁜 얼굴로 다가왔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눈빛은 눈부시도록 빛나고 있었다. 우리의 어눌한 언어가 부끄러울 정도로.

시역 2일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두 시간 이상 달려온 마을 앞에 섰을 때 반가운 학교가 보였다. '그래! 저 예쁜 영혼들에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 학교 강당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린 심령들이 제일 말씀을 잘 반응을 보고 앞으로 그들이 이 땅에 복음의 역군이 되리라 확신하며 기도드렸다.

시역 3일차 복음을 전하러서 이 연약한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이 절로 나왔다.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비해 주신 많은 영혼을 만났는데 방학이 내일이라고 한다. '또 주님이 계획하셨구나! 주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역 4일차 한 집을 방문했는데 어린 자매가 열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어 매우 마음이 아팠다. 복음을 전하니 그 아픈 눈으로 전도지를 열심히 보는 어린 자매가 얼마나 예쁜지 부족했지만 어눌한 말씀과 기도가 한없이 나왔다. '주님, 이 어린 영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의 씨앗도 뿌렸사오니 앞으로 은총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선교를 가리라! 어떤 굳은 결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선교 가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마음 속에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특히 교회에 나온 지 얼마되지 않은 나에게 선교는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3개월간의 훈련은 내가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영성훈련과 기도모임 등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은 씨이 되고

매주 금요일에 공급받는 말씀과 찬양은 선교의 도구로 나를 되돌렸다.

전옥순(성도, 20교구)

때마다 인도하신 성령님

드디어 선교지에 도착했다. 몇 개월간의 훈련과 심사를 통해서 팀장님을 비롯하여 팀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철저한 자기부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하기로 작정했다. 우리 팀은 주님의 인도에 따라 학교로 갔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며 전도지를 읽어주고 영접기도를 하게했다. 특히 찬양을 할 때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예수 사랑하심은"을 따라 불렀다.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다. 시골마을, 수삼마을, 무슬림 마을 등을 방문하여 일대일 전도, 노방전도, 축호전도를 할 때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였다. 전도지를 잘 읽는 초등학교 또래의 여학생에게 성경책을 주었더니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다. 영접기도를 할 때에는 중간 중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했다. 정말로 주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다.

사역을 마무리하는 주일 오후, 어느 시골 마을에 갔었다. 그곳에서 작년에 우리가 전도했던 '바우'라는 학생을 또 다시 만났다. 이 학생은 작년에 우리가 주고 간 성경책을 꺼내오더니 그 동안 계속 읽고 있었다고 했다. 우리 팀은 '바우'의 가족들을 모두 모아 놓고 예배를 드렸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주님께서 우리 팀원들이 학생을 만나도록 인도하심을 느꼈다. 예배를 드리고 헤어질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였다. 우리 모두는 '바우' 학생을 통해 그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마을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했다. 단기선교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동행하신다는 것을 많이 체험했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몸소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었다.

이창호(집사, 11교구)

전도를 통해 주신 세 가지 기쁨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푸른 하늘빛의 전도지 위에 크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나는 이 전도지를 한 묶음 가지고 옥삼동 661번지 골목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3층짜리 연립 4개, 주택 2개, 피자집, 세탁소, 음식점, 공인중개사, 미용실 등입니다. 발을 돌리던 한참만에 문을 여는 아주머니, "충현교회에서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잘에 나가요."라고 대답합니다. "이 열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세요."하고 전도지를 건넵니다. 문은 닫히지만 다음에 또 올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예수님이 저 아주머니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집을 향해 갑니다.

대부분의 연립주택에서는 문도 안 열어주고 또 문이 입구에서 아주 잠깐 있는 입도 많지요. 그래서 편지함에 전도지를 넣거나 문 사이에 끼우고 돌아오지만 주님은 역사하시겠지요. 피자집, 여기는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도 동역자인 권사님은 용케도 덜 바쁜 사람을 불렀고 다음 주일에 나를 것을 약속 받으십니다. 전도는 만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마리아를 깨는 그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전도지에 들어있는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교회 주변 전도를 시작하고 주님은 저에게 세 가지 기쁨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깊이를 더 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둘째는 충현전도대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자주 일어나 기쁩니다.

내가 죄인이고 너무 낙담하는 것을 아삼에도 불구하고 불러 주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 가슴에 크게 키우며 '햇빛 비추는 골목과 비 오는 골목에서 주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소서.'라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복기(집사, 7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5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5일(월) ~ 7월 3일(화)	10·11교구 연합	김연태
6월 25일(월) ~ 7월 3일(화)	4·5교구 연합	박남주
6월 26일(화) ~ 7월 4일(수)	17교구	강창식
6월 26일(화) ~ 7월 4일(수)	20·18교구 연합	이정탁
6월 26일(화) ~ 7월 5일(목)	23교구	박규연

현재 시역 중인 선교팀(1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3일(화) ~ 7월 11일(수)	11교구	김복수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2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9일(월) ~ 7월 17일(화)	15·14·162구 대평동	유종석
7월 9일(월) ~ 7월 17일(화)	23교구	이호일



이제 모두 주님께 내려놓았다

나에게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고3 수험생활! 그러나 나는 수능까지 180여 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수험생이다. 고3이라는 심리적 압박과 조급함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난이다. 주위의 많은 동기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의 비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늘 주눅이 들었고, 그 때마다 자신감을 잃은 채 나의 비전에 대해 걱정하였다. 비전에 대한 조급함이 극에 달할 무렵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안겨주신 세미한 깨달음에 또 한 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는 왜 나의 절대적인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끼는 거니? 난 이미 너를 택했고, 너를 통해서 이루어 줄 일이 있다.' 언제나 혼자인 것 같고, 또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영적 열등생에게 주님께서서는 위로의 말씀으로 영적 우등생이 되게 해주셨다. 이 모든 것은 진실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된 일이다.

행여 또 다른 사람이 듣게 될까, 가장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게 다가와 주신 주님! 아직 목표가 확실해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의 박탈감과 조급함은 이제 모두 주님께 내려놓았다. 이제 나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자 한다. 눈물나게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쓰러져 다시 일어서 수 없을 것 같아도... 고난으로 변장된 크나큰 축복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끌어 주실 줄 믿는다. 이전에에도 나의 삶은 모두 "주의 인도하심 따라"된 일이었었고, 현재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이며 미래의 나의 삶 역시나 변함없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임을 나는 고백한다. 부족한 자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비전과 나의 남은 수험생활은 오직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수험생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없지만, 나는 이미 세상이 경험치 못한 평강과 평화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체험하는 중에 있다. 천원교회 고등부 고3, 89 동기들 아! "주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은혜(고등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님은 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또 다시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백내장을 시작으로 몸이 극도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점점 어두워져갔고 수술을 하기 위해 검사를 하던 중 내양종 신장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미 기능을 상실한 두 콩팥은 결국 투석이 필요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백내장 수술은 마쳤지만 약화된 신장은 나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딱히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급기야 교회에 다녀오던 어느 날 전철에서 내려려고 일어서다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주치의의 "자각 신경이 없는 신장은 어느 날 갑자기 쪼르르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미뤄오던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끝인 것만 같았던 제게 오히려 새 생명을 부여받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투석을 하는 날은 심히 힘들지만 그 다음날은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올 수 있고, 모든 것이 새롭게 삼의 절도 향상된 가운데 살아 가는 매 순간이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하루가 소중하고 귀중하며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새 희망이요, 금요찬양집회의 찬송은 무한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도 날 지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환자인 제가 또 환자인 남편까지 돌봐야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저 혼자 아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약한 저의 남편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어 온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기쁨입니다. 새 생명주신 주님, 남은 인생을 당신의 도구가 되어 십자가를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아멘.

임신미(집사, 17교구)

차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교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구역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구역예배는 말씀과 기도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구역식구간에 서로 기도해주며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내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구역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구역장님을 통해 구역식구들의 소식만 전해 듣고 늘 아쉬워했는데 주님께서 식구들을 만날 기회를 주셨다. 바로 금요찬양집회에 구역식구들과 차를 같이 타고 교회에 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다.

집사님들과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동안의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차 안에서 작은 구역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도간의 교제를 통해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차를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찌 생각하면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주님께서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베풀고 전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하셨습니다. 카풀을 통해 베푸는 사랑의 기쁨과 받는 사랑의 감사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최선미(집사, 10교구)

초·중 도서실이 좋습니다!

나는 주말마다 부지런해졌다. 오전 9시에 시작되는 중등부 예배를 위해서 집에서 일찍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에 도착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예배가 끝나면 본반공부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정리하게 된다. 집에 가서 다시 말씀을 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 읽고 만다. 나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랬었다. 그러나 이제는 초·중 도서실에 가서 배운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초·중 도서실이 없었을 때는 선교관 4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었다. 조용하고 책 읽기에 좋았지만 어른들이 많이 가서 눈치가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계속 있다면 지루해서 시간이 더더욱 흘렀다. 그러나 초·중 도서실이 생긴 후로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이곳은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눈치 볼 일도 없다.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이야기가 많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책도 많다. 다 성경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집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고 돌아갈 수 있다. 시험준비 기간에는 조용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책을 보다가 지루해지면 성경 비디오회 시청할 수도 있다. 그래서 초·중 도서실을 매주 이용한다. 초·중 도서실이 우리 교회의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 주부터는 초·중 도서실에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함께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임소정(중등1부)

*제1교육관 7층에는 초·중 도서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도서실도 있다.

2007년 제2차 청지기훈련을 통한 은혜

서로 사랑하자

(요일 4:7~11)



나는 죄인 중의 죄수입니다!

사랑의 복음은 나를 도전하였다. 복과리와 같은 소란한 사랑이 아니다. 나의 의가 되어 자랑하는 사랑도 아니다. 하나님의 속신인 신실하신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만저주심으로 드러나는 본질적 사랑이었다. 그렇다면 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나의 사랑은 십자가 앞에 진실한가? 진정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 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해 내가 할 말은 이것뿐이다. “나는 죄인 중의 죄수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는 것 같다. 내 안에 새 힘이 솟는 듯하다. 이제 오직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원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땅을 보시며 그 영혼을 향해 우신 것처럼, 한 영혼과 열방을 향한 눈물이 있길 원한다. 나도 사랑의 도구가 되길 기도한다.

박경희(집사, 2교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조차 참으시고 또한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감당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 했던 말들이 생각났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나는 그들을 사랑할 걸까? 아직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수많은 표현으로 사랑을 얘기하지만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사랑의 마음은 온 데 간 데 없고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한 내 모습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대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죄인 중의 죄수인 나에게조차도 오래 참으시며 온유함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에 감사의 고백이 절로 흘러나온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친밀하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한다.

박지화(권사, 9교구)

믿음의 눈으로

이번 청지기훈련의 주제인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듣고 과연 나에게 이 뜻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대로 있는지 되새겨 보게 되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였지만 하루만 지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죄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이 계명을 지키려 할 때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겠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양인민(인수집사, 12교구)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늘 실수투성이에 누구에게도 자기 싫어하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사랑받을 자격도, 그러므로 사랑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

며 살았다. 점점 압박해지는 나를 보며 사실은 요즘 계속 사랑이란 의미에 많은 물음을 던지며 기도하고 있었다. 나의 필요에 의한 대가성이 있는 그런 공허하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진정한 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 기도가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 나에게 응답되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향한 그 진실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셨다. 나의 행동이 어떠한 내가 어떤 사랑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절대 변치 않는 주의 사랑!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 속에 담긴 진리를 이제야 깨달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남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며 어리석고 교만하게 살았던 내 삶을 회개하였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것이다.

김희경(집사, 10교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교회에 들어서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청지기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열심히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데 나 혼자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부끄러웠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 “서로 사랑하자!”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합독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 찰랑찰랑 퍼졌다. 처음에 나는 그 무리 안에 끼어 묻혀가는 듯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나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나. 나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다.”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죄가 하나 돌켜 생각났다. 계속되는 말씀에 나는 진짜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하나님아 죄여나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주시는 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최현호(중동3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14	무파	25	외선부	장승숙(21)	1227	조은남	1	청년2부	윤 정(1)
1215	바라트	25	외선부	최규태(2)	1228	최지연	2	장년1부	
1216	허 규	2	청년1부	김충현(22)	1229	정성원	2	소년부	
1217	브사트	25	외선부	구승희(16)	1230	정채원	2	유년부	
1218	철수	25	외선부	이훈일(21)	1231	김종국	17	장년2부	심정애(24)
1219	나산트	25	외선부	구승희(16)	1232	방희동	2	장년1부	
1220	김수영	3	장년2부		1233	김순미	2	청년1부	김호숙(1)
1221	고민경	9	장년1부	임영옥(16)	1234	김경미	2	청년1부	김호숙(1)
1222	정세이	5	청년1부	김영애(3)	1235	최종학	13	장년1부	류병희(1)
1223	윤광수	3	청년2부	최영희(3)	1236	이세형	11	청년2부	
1224	이지현	3	청년2부	최영희(3)	1237	김가빈	24	청년1부	
1225	이 철	23	초동부		1238	정미선	10	대학부	
1226	유지현	16	청년1부	김영숙(16)	1239	고은영	15	청년1부	이누리(5)

* 순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23 새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

교 회 소 식

본 세

1. 전창민 집사(이정희 집사의 남편, 전주전 - 전온미 - 전주전 이연희의 부친, 21교구 원 중구역) / 6월 7일 별세, 6월 30일 장례
 2. 최희숙 성도(김갑식 성도의 장모, 10교구 구의3구역) / 6월 26일 별세, 6월 29일 장례
 3. 조경숙 타교집사(교과열의 모친, 삼정열 집사의 시모, 17교구 중산구역) / 6월 29일 별세, 7월 1일 장례
 4. 송현수 성도(경광숙 성도의 남편, 10교구 면목1구역) / 3일 별세, 5일 장례
 5. 허경순 성도(신영미 성도의 시모, 12교구 풍곡동구역) / 3일 별세, 4일 장례
 6. 한윤복 성도(이영희 성도의 모친, 전주전 성도의 시모, 7교구 마한구역) / 4일 별세, 6일 장례
 7. 유남순 성도(정재모 안수집사의 모친, 김현미 권사의 시모, 12교구 풍곡동구역) / 4일 별세, 6일 장례
 8. 김병관 성도(김영희 집사의 남편, 김형열 집사의 시모, 15교구 반포1구역) / 4일 별세, 6일 장례
- 글 온
1. 이매송 군(이준호 씨·매송의 씨의 아들)과 한유리 양한복 집사·이연숙 권사의 딸, 19교구 / 14일(토) 오후 1시, 대원 제2전도호텔 4층 2번홀로, ☎011-753-1717 (당일 오전 9시 30분 교제역 8번 출구에서 버스승차)
 2. 신상철 군(이은지 집사의 아들, 분당우리교회와 김형열 양한복 집사·이영희 권사의 딸, 24교구) / 14일(토) 오후 1시, 분당 클럽이이호텔당장로, ☎031-783-5500

◆ 2007년 도 유망기 장학성 성향

1. 선별 대상
 -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5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 ② 본 교회의 교회학교로 재학 중인 고·대·대학생, 신학대학원 학생
 - ③ 공예대학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교회 각 부서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2. 신청 및 신청 방법
 - ① 2007년 6월 24일(수)~7월 8일(수)까지 (3주간)
3. 문의 및 신청 접수처
 - ☎02-552-8200(하) 472, 473

◆ 6교구 총동원 전도집회 일 시: 7월 8일(토) 오후 2시

장 소: 총동원전 2층

◆ 수확 성경공부 일 시: 6월 24일(수)~8월 12일(수), 8주간 장 소: 제2교과관 1층 예배다루실

2007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창 2:47)

부 서	일 시	장 소	부 서	일 시	장 소
행정1부	7.16(월), 17(화)	총회기도원	총동부	7.17(화)	총동부실
예배다루실	7.16(월), 17(화)	예배다루실	소년부	7.17(화)	소년부실
영양부	7.17(화)	영양부실	사망부	7.17(화)	사망부실
유아부	7.17(화)	유아부실	청년2부	7.17(화)	청년2부실
유지부	7.17(화)	유지부실	고등부	7.23(목)~25(수)	총회기도원
유년부	7.17(화)	유년부실	동등2부	7.26(목)~27(금)	총회기도원

총회 교회주변 전도

일 시: 예전도회 7월 11일(수), 부 예배 후
 남전도회 7월 14일(토) 오후 2시
 장 소: 예전도회 각 교구 구역당 영성훈련
 남전도회 1시(8월 15, 17, 19, 21, 23, 25, 27, 29, 31)
 2시(8월 16, 18, 20, 22, 24, 26, 28, 30)
 3시(8월 17, 19, 21, 23, 25, 27, 29, 31)
 4시(8월 18, 20, 22, 24, 26, 28, 30)

총회기도원 축복직원 모집

1. 모담부문 기도원 관리(지도)에 성취하신 분
 영성, 미화, 공예, 운전 등
 다양한 기술을 겸할 수 있는
 3. 재능기부, 4. 주일학교 교인
 5. 사역자 지원
 6. 사역자 지원
 7. 사역자 지원
 8. 사역자 지원
 9. 사역자 지원
 10. 사역자 지원
 11. 사역자 지원
 12. 사역자 지원
 13. 사역자 지원
 14. 사역자 지원
 15. 사역자 지원
 16. 사역자 지원
 17. 사역자 지원
 18. 사역자 지원
 19. 사역자 지원
 20. 사역자 지원
 21. 사역자 지원
 22. 사역자 지원
 23. 사역자 지원
 24. 사역자 지원
 25. 사역자 지원
 26. 사역자 지원
 27. 사역자 지원
 28. 사역자 지원
 29. 사역자 지원
 30. 사역자 지원
 31. 사역자 지원
 32. 사역자 지원
 33. 사역자 지원
 34. 사역자 지원
 35. 사역자 지원
 36. 사역자 지원
 37. 사역자 지원
 38. 사역자 지원
 39. 사역자 지원
 40. 사역자 지원
 41. 사역자 지원
 42. 사역자 지원
 43. 사역자 지원
 44. 사역자 지원
 45. 사역자 지원
 46. 사역자 지원
 47. 사역자 지원
 48. 사역자 지원
 49. 사역자 지원
 50. 사역자 지원
 51. 사역자 지원
 52. 사역자 지원
 53. 사역자 지원
 54. 사역자 지원
 55. 사역자 지원
 56. 사역자 지원
 57. 사역자 지원
 58. 사역자 지원
 59. 사역자 지원
 60. 사역자 지원
 61. 사역자 지원
 62. 사역자 지원
 63. 사역자 지원
 64. 사역자 지원
 65. 사역자 지원
 66. 사역자 지원
 67. 사역자 지원
 68. 사역자 지원
 69. 사역자 지원
 70. 사역자 지원
 71. 사역자 지원
 72. 사역자 지원
 73. 사역자 지원
 74. 사역자 지원
 75. 사역자 지원
 76. 사역자 지원
 77. 사역자 지원
 78. 사역자 지원
 79. 사역자 지원
 80. 사역자 지원
 81. 사역자 지원
 82. 사역자 지원
 83. 사역자 지원
 84. 사역자 지원
 85. 사역자 지원
 86. 사역자 지원
 87. 사역자 지원
 88. 사역자 지원
 89. 사역자 지원
 90. 사역자 지원
 91. 사역자 지원
 92. 사역자 지원
 93. 사역자 지원
 94. 사역자 지원
 95. 사역자 지원
 96. 사역자 지원
 97. 사역자 지원
 98. 사역자 지원
 99. 사역자 지원
 100. 사역자 지원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답당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주일)
설교자/기도자	안창덕/이창호	정진호/정재영	김기원/박영실	유병희/최용성	이희식/변창대	이희식/강덕필
설교 본 문	창 22:17-29	창 23:1-11	창 23:12-21	창 23:22-35	창 24:1-10	창 24:11-22

예배담당 안내 (7/11~7/15)

주일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 양
7/11 수요일	지상명령 (마 28:16-20) 김성관 목사	안치원	담로진	이매송 군(이준호 씨·매송의 씨의 아들)과 한유리 양한복 집사·이연숙 권사의 딸, 19교구 / 14일(토) 오후 1시, 대원 제2전도호텔 4층 2번홀로, ☎011-753-1717 (당일 오전 9시 30분 교제역 8번 출구에서 버스승차)
7/11 수요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호 2:14-20) 전성원 목사	이유진	조옥환	내 맘이 낙심되어 (신로안 장안대)
7/13 금요일	김성관 목사	전성원	배부실함 찬양대 / 내 마음의 안수집사 총장단	(예배 전 찬양)
7/15 주일 I	확실한 많은 증거 (행 1:3) 탁정원 목사	김정원	최치훈	하루는 가는 밝은 길이 / 소프라노 김소연(현역 독창자)
7/15 주일 II	확실한 많은 증거 (행 1:3) 이영국 목사	이희식	전복희	하루는 가는 밝은 길이 / 소프라노 김소연(현역 독창자)
7/15 주일 III	확실한 많은 증거 (행 1:3) 김성관 목사	안치원	김종구	하루는 가는 밝은 길이 / 소프라노 김소연(현역 독창자)
7/15 주일 IV	확실한 많은 증거 (행 1:3) 최용철 목사	황진성	고계승	하루는 가는 밝은 길이 / 소프라노 김소연(현역 독창자)
7/15 주일 V	확실한 많은 증거 (행 1:3) 유재진 목사	강영구	이길호	하루는 가는 밝은 길이 / 소프라노 김소연(현역 독창자)
7/15 주일장	가라!는 명령의 진정한 의미는 (마 16:15-16) 김성관 목사	양재용	이진동	하루는 가는 밝은 길이 / 소프라노 김소연(현역 독창자)

배매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오전 11:00	본 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II 오후 3:00	본 당
주일전야예배	오후 5:00	본 당
	오후 7:00	본 당
	오후 9:00	본 당
금요일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 031-766-5425)

회 회	시 간	차 량
최종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출발
금요일회	저녁 11:00	금요일회 출발 후 분당 앞출발

오전 11:00에 도착하는 주일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시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Korean are available at the Eter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t. Luke's Church, Mongolia,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과관 110호
	오전 10:50	제1교과관 201호
	오전 10:50	제1교과관 207호
	오전 10:30	제1교과관 307호
	오전 10:30	제1교과관 407호
남 부	오전 10:30	제1교과관 507호
	오전 9:00	제1교과관 301호
	오전 9:00	제1교과관 401호
	오전 9:00	제1교과관 501호
	오전 11:00	제2교과관 4층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과관 4층
	(토) 오후 5:30	제2교과관 4층
	오전 9:00	제2교과관 4층
	오전 11:00	제2교과관 4층
	오전 11:00	제2교과관 4층

7월 총원 기도의 향

- ① "저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들을 버리고 자기의 교회를 세워가는 총원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라.
- ②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총원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라.
- ③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의 감동으로 통치하시므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건강함을 주하시라.
- ④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총원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 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라.
- ⑤ 1·1·1 전도와 매일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회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시라.
- ⑥ 2007년 여름 제철학교를 통하여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예수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주요찬양집회를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시라.
- ⑦ 피백편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꾼 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둔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종인 되게 하시라.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과 총원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고,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남곡시설 및 분당 외벽석재 보수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라.

24시간 연속 기도소: 본당 113호(112호 옆)

교회 지도는 길



성 · 기 · 목 · 사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구 분	시 간	장 소
사무장	김은호	노영현
	김은호	노영현
	김은호	노영현
	김은호	노영현
	김은호	노영현
부목사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전도사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전도사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전도사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